서울 강남구 청담동

최지우 섬뜩한 공포영화 '뉴 노멀' 정식 개봉박두



연합뉴스

한류스타 1세대 대표 여배우인 최지우(본명 최미향)는 18세던 1994년 MBC 23기 공채 탤런트에 합격해 1995년 MBC 드라마 '전쟁과 사랑', 1996년 영화 '박봉곤 가출사건'을 통해 안방극장과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다.

1996년 60%대 기록적인 시청률을 자랑했던 KBS 드라마 '첫사랑'에서 성찬우(배용준 분)를 좋아하는 조연 강석희 역을 연기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이후 영화 '올가미' '키스할까요?', 드라마 '신 귀공자' '진실' 등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린 작품은 2002년 방영된 KBS 드라마 '겨울연가'다. 이 드라마는 국내 최고 시청률 28.8%, 평균 시청률 23.1%를 기록한 인기물로 결혼을 앞둔 한 여자에게 죽은 첫사랑과 닮은 한 남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말괄량이면서도 청순한 순애보 모습의


빌딩

정유진 역을 연기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한 편으로 한류스타로 거듭났으며 '첫사랑'에 이어 배용준과 함께 다시 한번 연기해 더욱 주목받았다.

그해 KBS 연기대상에서 인기상, 여자 최우수연기상, 제38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인기상 등을 수상하며 연기자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이듬해 일본 NHK 채널에도 방영돼 시청률 20%대를 넘기며 한국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배용준의 별칭 '욘사마'와 함께 최지우도 공주 또는 아가씨라는 뜻의 '히메(ひめ)'를 붙인 '지우히메'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한창 인기 가도를 달렸을 때 최지우가 일본에서 얻은 광고 수익만 한화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2004년 베이징 TV '101번째 프러포즈', 2006년에는 일본 TBS 드라마 '윤무곡~론도' 등에 출연하는 등 한류배우임을 입증했다.

화려한 인기에 힘입어 출연료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03년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 2007년 MBC 드라마 '에어시티'의 회당 출연료는 4000만 원에 달할 정도였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 '에어시티' '수상한 가정부' '두 번째 스무 살' 등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서 입지를 굳혀 예능까지 진출해 활약했다. '꽃보다 할배' '삼시 세끼' '커피프렌즈' '시고르 경양식' 등을 통해 제2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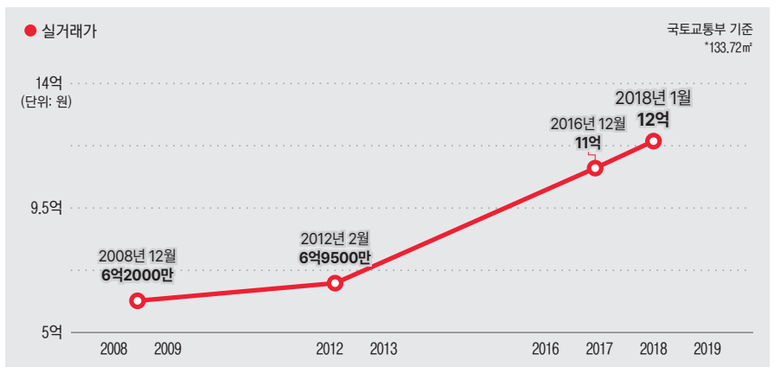
특히 2022년 1월 종영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시고르 경양식'에 출연해 매력을 뽐냈다. '시고르 경양식'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팝업 레스토랑을 열고 스타들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을 담았다. 마지막 영업일에 사장 최지우는 "사장이 사장답지 못해서 죄송해요. 너무 잘하니까 내가 진짜로 한 게 없었다. 다들 너무 잘하니까"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보여줬다.

2018년 9세 연하 일반인과 결혼해 2020년 46세에 딸을 낳아 엄마가 된 최지우는 영화 '뉴 노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폐막작이었던 '뉴 노멀'은 '기담' '곤지암'을 연출한 공포영화의 대가 정범식 감독의 작품으로 저마다 외로움과 고단함을 짊어진 이들이 서로 스치며 벌어지는 섬뜩하면서도 쓸쓸한 이야기를 담는다. 최지우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 현정 역을 연기했고 올해 정식 개봉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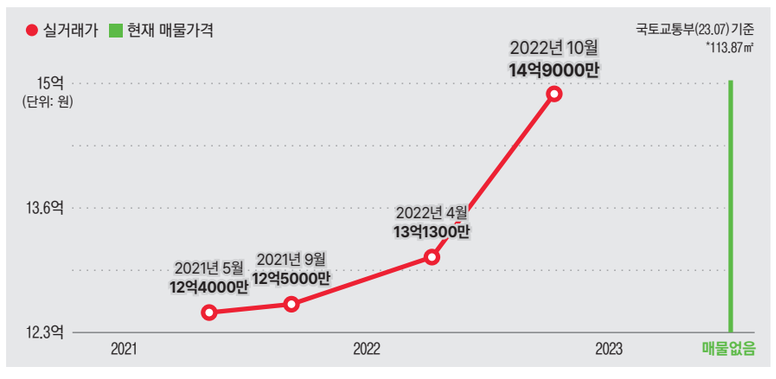
한편 최지우는 2006년 6월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에 있는 5층 건물을 54억 원에 매입한 건물주다. 이 건물은 2001년 준공돼 대지면적 332.3㎡(100.52평), 연면적 913.62㎡(276.37평),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압구정로와 도산대로 이면도로에 있다. 압구정로데오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차로 서울 내 지역 어디든지 오가는 접근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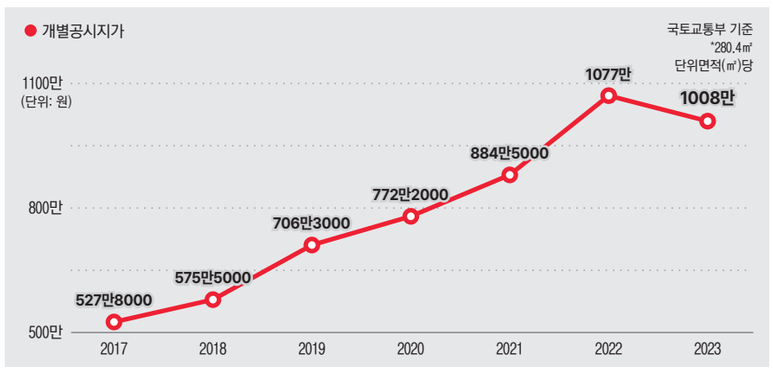
네이처포엠



아노블리81



소헌빌딩



김유정 현)배우



2003년 크라운제과 '크라운산도' CF 모델로 데뷔한 김유정은 이듬해 영화 'DMZ, 비무장지대'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아역 시절 영화 '각설탕' 임수정, '황진이' 송혜교, 드라마 '바람의 화원' 문근영, 드라마 '일지매' 한효주 등 유명 여배우의 아역으로 연기 재능을 드러냈다. '구미호: 여우누이뎐' KBS 연기대상 청소년연기상, '동이, 욕망의 불꽃' MBC 연기대상 아역상, '해를 품은 달' MBC 연기대상 최고의 여자 아역배우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이어갔다. 이후 영화 '추격자' '해운대' '동창생' '우아한 거짓말' '비밀' 등과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과 연기자상을 수상한 '편의점 샛별이' '홍천기'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0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20세기 소녀' 출연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진출했다.



최정훈 현)이도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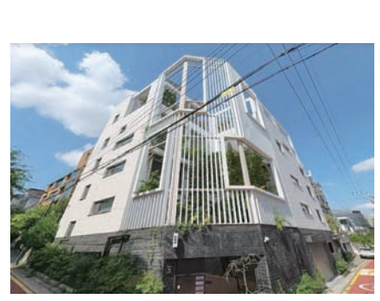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장남이다.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부동산금융학 석사,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졸업 후 현대건설 해외 토목견적부서에서 2년간 근무한 뒤 대보건설으로 자리를 옮겨 전략기획실장 겸 인프라개발사업본부장, 이사, 전무, 부사장을 지냈다. 한강에셋자산운용 경영협의회 의장을 거쳐 이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오너 2세지만 가업승계 대신 독립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내 길을 개척하고 싶은 욕심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대왕의 본명에서 회사 이름을 따온 '이도(YIDO)'는 종합유지관리사업(O&M)을 하는 업체로 폐기물 처리, 레저, 인프라, 부동산 등 사회적 관심도 높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한다.



김선영 현)헬릭스미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선영 헬릭스미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생물공학 석사, 하버드대에서 분자유전학 석사,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분자유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조교수로 일하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임용돼 국내 최초로 유전자치료 연구를 시작했다. 1996년 서울대 학내벤처 1호 바이로메디카퍼시픽을 설립했고 1999년 회사이름을 바이로메드로, 2019년 현재의 헬릭스미스로 변경했다. 헬릭스미스는 외부투자를 받으면서 2005년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연구개발에도 성과를 내며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중 앞서 가는 국내 바이오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올해 1월 말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사내이사로서 CSO로 일하며 헬릭스미스 후보물질에 대한 개발, 임상, 사업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건대입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서울 광진구

서울시는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로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성수 정보기술(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인접했으며 이면부는 먹자거리 등 중소규모의 비주거 시설 및 저층 주거단지가 들어선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아차산로 및 동일로 일대는 전략거점으로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가로공간의 입체적 계획 등 입지 특성에 따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산업 확장 및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아울러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시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공급을 유도하고 가로의 유기적 연계로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축별 특성화가 되도록 주요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 및 입면 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해 세부 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해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 청년들의 도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임대산업시설로 조성하고 동일로 주변 일대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순위는 '정주여건'

경기 파주시·충북 청주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가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10~60대 남녀 총 2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주여건을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할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주변 인프라'가 26.1%로 1위에 올랐고 △가격 21.8% △브랜드 20.7% △집 내부 또는 단지 시설 18.1%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가격의 아파트라면 어느 곳을 매매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갖춰진 아파트'가 35.1%를 차지했고 △역세권 26.6%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잘 갖춰진 아파트 17.6%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침체된 청약시장에서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1순위 청약에서 650가구 모집에 4만1802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64.31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운정신도시 중심에 들어서 GTX-A 운정역과 가깝고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정호수공원, 산내공원 등 녹지환경도 풍부해 최적의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힐스테이트 속초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지방도 마찬가지다.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는 일반분양 473가구 모집에 3만4886건이 접수돼 평균 73.7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 바로 앞에 중심상업지구 조성이 예정돼 있고 현대백화점·롯데아울렛·지웰시티몰 등도 가깝다. 여기에 근린공원과 문암생태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곳은 부동산 상승기에 가격 상승률이 높은 데다 환금성도 좋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